

채란업 발전을 위해 채란인의 날 제정



▲ 김포채란지부는 지난 7일 채란인의 날을 제정하고 채란업 발전을 꾀했다.

김포채란지부(지부장 임재룡)가 채란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채란업 발전을 기하기 위해 '채란인의 날'을 제정하고 매년 행사를 개최기로 하는 등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란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.

김포 채란지부는 1년에 2~3차례씩 회원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신선한 계란과 삶은 계란으로 대소비자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계란소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. 지부는 지난 7일 강화군 길상면 소재 동막해수욕장에서 본회 최준구 회장, 김선웅 채란분과위원장, 임한호 김포축협조합장을 비롯한 관련인사 및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지부 채란인의날을 제정하고 부부동반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.

박호준 총무의 진행으로 이어진 단합대회 행사에서는 부부가 한조가 되어 발목어 낚기, 계란 나르기 등이 있었고, 제기차기, 족구대회,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부부간의 정과 전 회원들의 단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.

임재룡 지부장은 최근 난가하락 등 당면문제가 산적해 있음을 강조하고 채란인의날 행사 제정을 통해 회원간의 단합과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.



“채란인이 날”을 제정하고 양계업 발전을 꾀하고 있는 임재룡 지부장 ▲ 박호준 총무(가운데)가 푸짐한 선물을 회원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다.▶

